

2015년 9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7,734,009	전월이월금	4,542,039
지 로	2,938,490	우리은행	7,300,000
국민은행	5,147,730	하나은행	1,336,000
조흥은행	155,000	신한은행	2,410,000
외환은행	732,500	제일은행	225,000
농 협	1,495,000	기업은행	295,000
우 체 국	115,000	지정기탁	490,000
		기타수입	552,25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2,434,84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960,0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44,600	약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1,662,34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957,46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600,000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 보육지원, 중병 치료 지원금	
교육비	2,035,54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1,871,34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3,716,120	잔액(이월금)	4,017,889

<쉼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30	0	0	30
베다니아의 집	5	1	1	5
벗들의 집	7	6	1	12
사랑의 집	12	0	0	12
마고네공부방	8	0	0	8



즐거운 중에도 주님을 섬겨리

요즈음 저희는 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단체도 있고 정부단체나 UN단체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난민의 어려움과 지금 행해지고 있는 노력들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 베다니아의 집에 콩고출신 난민가정이 들어왔습니다. 베다니아의 집은 이주근로자환자쉼터로써 난민가정을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이 콩고출신 가정은 난민 신청도 불인정됐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7살 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오갈 데가 없어진 사정을 UN난민기구에서 도움요청을 했을 때 단순히 규정만을 근거로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머물고 다른 머물 곳을 찾아 옮겨가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베들레헴 어린이집에 보내어 심리상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임신을 했고 노산으로 전치태반 진단을 받아 산부인과에 수시로 입·퇴

원을 반복했습니다. 올해 다행히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고 딸은 베들레헴 어린이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남편도 취직하게 되었고, 이제 곧 조그만 집을 얻어 이사를 나갑니다.

이 난민 가정을 받아드리고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관심 밖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주 이민자와 난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더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위한 노력을 할 때가 되고 있음을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의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나온 용기는 우리가 인간의 비참에서 떨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민과 난민, 강제이주민과 망명자들에게서 당신을 알아 뵈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우리가 누려온 안락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6세 교황님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 권리를 어느 정도 너그럽게 양보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5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중에서)

2015년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10월의 중간에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평안 마르코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후원미사는 16일, 12월 후원미사는 21일, 2016년 1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환자 소식

2015년 9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6명입니다. 그 중 9월 18일에 조산(7개월)으로 태어난 필리핀 환아(남, 신생아)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한국에 있는 자수공장에서 일하면서 본국에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이 부부의 다른 자녀들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면서 아기 아버지 혼자 돈을 벌어 본국에 생활비를 보내고 나머지로 한국 체류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산아로 태어나 한양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저희 이주사목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니 보라매병원에서는 국내에서 근로했다는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병원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고 9월 21일에 보라매병원으로 전원 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병원비는 7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병원비 납부는 '이른둥이' 프로그램(아름다운재단)에서 받은 500만 원과 나머지 200여만 원은 후원회원분들의 후원금 중 긴급의료지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아기는 보라매병원에서 최소 4~5주정도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한 결과 뇌 피질에 수포가 있는데 그것이 뇌성마비일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입니다. 퇴원하기 전에 MRI로 정확히 검사해야 합니다. 뇌성마비일 경우 생후 3개월부터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3세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모는 앞으로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아기와 본국에 있는 가족도 걱정입니다. 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추석 송편빚기



소방대피훈련